

## 하이퍼텍스트의 신대륙에 모여드는 작가와 출판인들

전자 출판업자와 뉴미디어 전문가들 하이퍼텍스트 관련 국제기구 창설해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가 전세계 작가들과 출판인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출판업자와 뉴 미디어 전문가들이 잇달아 국제기구를 설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ELO와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인 SIGWEB은 세계적인 국제 하이퍼텍스트 회의를 열어 디지털문학과 출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 20일, 세계 네트워크 전문가들의 가상 도서관 사이트인 '네트워크 월드 퓨전'(www.nwfusion.com)은 20세기 최고의 기술 5위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를 표시하는 언어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 전화기 스위치, 최초의 컴퓨터, ARPANET과 인터넷 프로토콜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인터넷 혁명을 가능하게 한 HTML이 세기의 기술로 꼽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세계 문학과 출판의 역사 다시 쓰는 하이퍼텍스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텍스트가 글쓰기와 글읽기의 지평선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하이퍼-테러리스트를 자칭한 존 바저(Jon Barger)란 인물은 하이퍼텍스트를 기준으로 세계의 연대기를 다시 작성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역사는 문자의 시대, 인쇄술의 시대, 전자의 시대, 거대 철강(Big Iron)의 시대, 네트워크 시대, 마이크로 시대, 위지윅(WYSIWYG) 시대로 이어진다.

바저는 하이퍼텍스트 시대를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에 하이퍼카드가 장착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1991년 린드너와 맥커힐(Lindner & McCahill)의 고퍼(Gopher)가 나온 때까지로 잡는다. 그 이후 1992년부터 WWWWeb 시대, 1995년부터 넷스케이프 시대, 1997년부터 하이프(Hype)의 시대로 그의 분류는 좀더 세분화된다.

하이퍼텍스트가 미래의 문학과 출판의 총아로 떠오른 가운데 전자출판업자들이나 뉴 미디어 전문가들이 국제 기구를 잇달아 설립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전자문학기구(The Electronic Literature Organization, www.eliterature.org, 이하 ELO)가 대표적인 조직이다. ELO는 1999년 초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출발했다. ELO의 집행위원장인 스코트 레트버그(Scott Rettberg)는 당시 소비자 정보 웹 사이트인 데자닷컴

(Deja.com)의 대표였고 현재 ELO 집행위원인 제프 벨로우(Jeff Ballowe)와 만나, 디지털 작가들과 기술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ZD-NET, BNC인터넷, 주피터 커뮤니티 등에서 후원금을 받아 ELO를 조직했다.

레트버그는 지난해 여름 《퍼블리셔스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ELO는 디지털 작가들이 전자 미디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트버그는 하이퍼텍스트 소설 <미지의(Unknown)>의 공저자로, 1998년 제1회 trAce/AltX 국제 하이퍼텍스트 대회에서 이 소설로 첫번째 상을 수상한 작가기도 하다. 그는 ELO가 공식적인 상업조직이기보다는 싱크탱크와 미국 시인 아카데미의 가교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트버그는 벨로우와 작가 겸 교수인 로버트 쿠버(Rovert Coover) 등의 협력으로 ELO의 전자출판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세계의 위원회를 조직했다. 주로 학술분야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집행위원회, NBCi, About.com, ZD-NET 등의 CEO가 주축이 된 인터넷 위원회, 그리고 작가인 조지 플림턴(George Plimpton), 보일(T.C. Boyle), 출판인인 모건 엔트레킨(Morgan Entrekin), 바니 로셋(Barney Rosset) 등이 참가한 국제 문학 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 새로운 출판모델 모색하는 ELO의 국제 심포지엄

ELO는 지난해 6월 뉴욕대학의 기술발전 센터에서 전자문학 강독회를 열었는데, 이때 발표된 전자문학 작품들의 저자와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문학의 현단계와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빌 블라이(Bill Bly)의 <우리는 이어져온다(We Descend)>는 역사의 본질을 다룬 하이퍼텍스트 소설로, 역사적 문헌이 무엇을 재현하며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스테파니 스트릭랜드(Stephanie Strickland)의 <샌드와 해리 수트의 발라드(The Ballad of Sand and Harry Soot)>는 실리콘으로 만든

여성 샌드와 탄소로 만들었지만 육체와 감정을 소유한 남성 해리 슈트 사이의 실패한 사랑의 시다. 그밖에 고딕적 미스터리와 르네상스 로맨스를 디지털 시대에 되살린 롭 위틱(Rob Wittig)의 <탱크 20 라이브러리 스튜디오(Tank 20 Library Studios)>, 비밀정부 보고서를 그린 니 몬트포트(Nick Montfort) 외의 <에드 리포트(The ED Report)> 등의 작품이 발표됐다.

ELO 웹사이트는 현재 e-퍼블리싱 뉴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e-퍼블리싱 전문가들의 대화방, 학술 사이버 커뮤니티, 쌍방향 시와 소설, 그리고 비소설에 관련된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출판의 미래'라 불리는 디지털 미디어 심포지엄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제1회 심포지엄은 올해 봄 뉴욕에서 열릴 계획이다.

레트버그는 올해 열리는 심포지엄이 "새로운 출판모델과 새로운 전자적 실험,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작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학이 용어상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스티븐 킹이 전자문학을 널리 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를 잘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심포지엄을 여는 까닭은 새로운 문학 매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부터 ELO는 '2001 전자문학상'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와 소설부문으로 나눠 상금 1만달러를 수여한다. 국제문학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맡게 되는데, 응모작에 대한 심사 기준은 ELO의 문학적 지향성을 엿보게 한다. 전자 기술의 창의적 응용, 문학의 질,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질과 접근 가능성, 전체로서 연계성을 갖춘 작품집 등이 심사기준이 된다.

#### 하이퍼텍스트 분야의 학제간 연구 지원하는 SIGWEB

ELO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하이퍼텍스트 및 하이퍼미디어 관련 국제 조직은 SIGWEB(www.acm.org/sigweb)이다. SIGWEB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인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에서 운영하는 특별조직으로,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 분야에 관한 학제간 연구를 지원한다.

SIGWEB은 과학자, 시스템 디자이너, 유저들을 위한 포럼도 제공한다.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 연구 및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홍보, 보급, 아이디어 교환의 장소가 된다. SIGWEB은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번갈아가며 국제 하이퍼텍스트 회의(International Hypertext Conference)를 개최하는데, 지난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제12회 국제 하이퍼텍스트 회의는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의 아르후스 대학에서 열린다. '반작용/공동작업' 회의에서 존 스미스(John Smith)와 메리 존스(Mary Jones)는 각각 시스템X와 시스템Y에 대해 설명하고, 제인 도(Jane Doe)와 톰 블랙(Tom Black)은 각각 자신의 새로운 하이퍼텍스트 시와 소설을 발표할



하이퍼텍스트가 미래의 문학과 출판의 총아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세계 작가와 출판사, 학자들이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사진은 ELO의 인터넷 홈페이지.

예정이다.

그밖에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 작가들이 현재 어떻게 작업하며 디지털 시스템이 그들의 작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작가와 독자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현재 어떤 저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새로운 기능이 현존하는 시스템에 덧붙여질 수 있는가, 공동창작을 어떻게 강화하며 이용할 수 있는가 등의 주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국제 디지털 시 페스티벌도 열린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뉴욕의 버팔로에서 열리는 'E-Poetry 2001'은 최초의 디지털 시인과 아티스트들의 잔치다.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캐나다 등지의 작가들이 참가할 예정인 이 페스티벌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구현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시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하이퍼텍스트 및 하이퍼미디어를 둘러싼 전세계 출판인, 작가, 학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 칼럼니스트가 전자출판사들의 상업주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디지털 소설가이자 이북넷(eBookNet)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아모스(William Amos)는 지난 11월 런던에서 개최된 '2000 국제 이퍼블리싱 컨퍼런스'(The Business Forums Of International ePublishing Conference 2000)에 참가하고 난 후 누보미디어(www.nuvomedia.com)에 2회에 걸쳐 칼럼을 발표했다.

아모스는 e-출판업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새로운 콘텐츠보다는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과 디지털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더 관심이 있다고 개탄했다. "e-퍼블리싱이 아직도 탄생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이 더 크다. 열심히 작업하고, 양질의 작품을 생산하며, 논쟁에 참여하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짐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이번 회의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라고 밝혔다. — 박천홍 기자